

경북고령

134차 호 문화탐방을 다녀와서...

온양문화원 간사 석 명 주

맑은 하늘이 나를 느끼라고 손짓하는 청명한 가을 어느 날, 문화원에 입사하고 두 번째 문화탐방을 함께 했는데 벌써 134차라고 한다.

긴 시간 문화원과 함께 한 어르신들이실텐데 이제 갓 들어온 간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례함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문화탐방어르신들의 전통은 술 드시지 않고 조용히 강의 들으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다니시는 것이 이곳의 문화탐방 문화인가보다.

경북 고령 지산리 30호 고분처음 갔던 달은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달은 일상을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녀왔다.

무엇이던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더니 마음가짐에 따라 다 달라 보인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재잘재잘 대는 시끄러움속에 활기가 넘쳐나고 어르신들은 조용함속에 나름대로 편안함이 묻어 있다. 차안에서는 조시현 어르신의 강의가 있었다.

'항상 웃고 칭찬하고 사랑하라' 평범한 진리인데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덕목이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었다.

이외수 선생님의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라는 말이 떠올려진다.

자기 땀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눈으로 들판을 사수하는데 유사 이래로 허수아비에게 붙잡혀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어버린 참새는 한 마리도 없고 다만 소

심한 참새만이 제풀에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의 심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근심을 벗어나고 '웃침사' 할 때 젊음의 비결이 있었던 것이다.

강의를 듣다 보니 어느덧 정확하신 기사님 덕분에 도착 예정시간에 딱 맞게 경북 고령에 도착하였다. 고령에서는 산림녹화기념숲과 우륵박물관 대가야박물관을 탐방하였다. 갓 조성해 놓고 손 본지 얼마 안 되

는지 모두 다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

대가야 왕릉이 모여 있는 주산기슭에 올라가자는 몇몇 어르신들의 말씀을 뒤로 하고 지산리 44호분의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왕릉전시관에 들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고령의 나뭇잎마다 흔들리는 바람과 햇살과 하늘과 눈 맞춤한 하루...

고령이미지는 조용하면서도 아늑하고 편안한 땅으로 기억될 듯 하다.

이제 하나 씩 하나 씩 아름다운 문화탐방 땅을 맘속에 새겨야겠다.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하나 그 순간을 회상할 때 따뜻하고 행복했던 문화탐방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문화탐방 어르신들처럼 멋지게 채워가고 싶다.

